

선운사복지재단 이사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며 고창시니어클럽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고창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선운사복지재단 시니어클럽 개관

고창지역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고창시니어클럽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이사장 경우, 선운사 주지)는 11월 6일 고창읍 월곡뉴타운지구에 건립한 고창교육문화센터(고창불교회관)에서 고창시니어클럽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피어라! 은비 꿈!’ 이라는 주제로 고창불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은 판소리보존회의 식전공연에 이어 시니어클럽 지정서 전달, 기념테이프 절단, 경과 및 운영방안 보고, 기념사, 축사, 시니어 모델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1층 로비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와 전북지역 각 시니어 클럽의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참석한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복지재단 상임이사 범여 스님, 고창불교회관장 법만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장 등 전북지역 시니어클럽관장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해 고창시니어 클럽 개소식을 축하했다.

선운사복지재단 이사장 경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고창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안겨드리고 지역사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화로 장엄한 개산 1346년

부산 장안사, 제3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

부산 기장 천년고찰 장안사가 개산 1346주년을 맞아 가을 국화로 도량을 장엄하고 개산조 원효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3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 를 진행했다. 장안사 대중은 개산조인 원효 스님 영전에 직접 재배한 차를 올리며 개산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참석 내빈들은 함께 헌화하며 축하했다. 범종 타종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으며 장안사와 고불사를 주제로 열린 사진공모전 및 국화분재 시상식도 이어졌다. 장안사는 매회 사진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독려하며 아름다운 장안사 풍경을 담은 사진으로 전통문화 중요성을 알려 왔다. 아울러 열린 국화분재는 장안사가 위치한 기장 지역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국화분재로 가을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미스트롯 신동으로 불리는 성민지와 가수 박서진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주지 정오 스님은 “경내를 아름다운 국화로 장엄한 모든 분들과 사진으로 전통문화의 보고인 장안사를 아름답게 담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모두가 대상감이며 상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다”며 “오늘 개산조 원효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가을 정취를 나누고자 흥겨운 무대도 준비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장안사 주지), 황운철 기장군의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부산 50년’ 불국토 건설 다짐

삼광사, 기념법회 봉행 및 다양한 행사 진행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삼광사가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미래 50년의 도약을 다짐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일 부산 천태종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연혁보고 △표창패 수여 △봉행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삼광사는 신도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천태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으며 또한 부산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불사에도 앞장섰다. 자비나눔을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삼광사는 불교계 복지시설에 자비의 쌀 3만㎏을 전달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천태 일승 묘법의 깃발아래 굳은 신심으로 모여든 대중들이여, 일심청정 한결같은 기도 속에 반백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백양산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는 정성 대조사님 호념 속에 불보살님 감응하시니, 마음 깊이 빛나는 초발심의 원력이 성불의 길 밝혀주는 등불되어라”고 법문했다.

3만여 사부대중 운집… 축하인사
장학금 · 자비의 쌀 등 자비나눔
지역민 함께 하는 행사로 거듭나
“성불의 길 밝혀주는 등불 되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삼광사에 무수한 사람이 인연을 맺어 보살도를 실천하니, 이 지역에 대도량을 건립하라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부촉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절실히 느낀다”며 “삼광사는 대조사전 건립이라는 큰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부대중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도량을 확장하고 전법의 토대를 넓혀가는 불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부산지역 전법과 삼광사 개산 50주년에 원력을 품고, 삼대지표와 삼대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만만의 중생을 이 도량으로 귀의시켜 국운융창, 인류평화, 불국토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11월 1일 부산 천태종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삼광사는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뿐 아니라 수행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불자들과 기념한다. 삼광사는 지난 10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기념음악회를 봉행했으며 11월 22일까지 법화경 산림법회를 이어간다. 아울러 11월 2일 입재한 100만독 관음정진 결사는 2020년 2월 9일까지 계속된다.

이외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꽃꽂이 전시회와 한 · 중 · 일 전통음식 한마당도 개최됐다. 한 · 중 · 일 전통음식 한마당에는 시민 및 다문화인 등 1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음식 전시와 전통차 시음, 떡메치기, 500인분 대형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발우공양 체험,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삼광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어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마련한 대형비빔밥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전통가야금, 태극권, 바라무 등의 공연도 선보였다.

아울러 11월 23일에는 지관전에서 개산 50주년 기념 청소년 음악제가 봉행되며 삼광사의 개산 50주년과 부산 불교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학술제도 열릴 예정이다.

가을향기 가득한 내소사 산사음악회

‘천년 북소리 마음 울리다’ 주제
각종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진행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꽃살무늬 문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1월 2일 가을색이 짙어가는 수령 1,200년 된 느티나무와 천년고찰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천년의 북소리 마음을 울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내를 꾸민 내소사는 음악회를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11월 2일 부안 내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내소사 산사음악회.

범종과 법고타고로 막을 연 내소사 산사음악회는 타악그룹 ‘얼쑤’ 의 타악 퍼포먼스가 음악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뉴코리아 목관앙상블의 클래식 음악공연, 프로젝트 ‘경취’ 의 경기민요 공연, 뮤탐보이스의 성악공연과 가을에 어울리는 가수 해바라기의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가을빛 가득한 산사에서,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는 소생과 힐링의 공간 내소사에서 쉼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한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백양사 율원장 정봉 스님, 임실 혜월암 주지 종고 스님, 부안 혜원사 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부안군 한근호 부군수, 군의회 문창기 의원, 김정기 의원, 변산국립공원 김효진 소장과 관광객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가을 정취를 한껏 즐겼다.

내소사 전각 곳곳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 연꽃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열렸고, 봉래루에서는 내소사 단청사진 전시회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20年 庚子年 福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출시!

“같은 옥으로 만들어진 福 달력”

같은 福자 글씨는 옥으로 만들어진 돌출형이라 입체감이 있어 매우 품격있고 고급스럽습니다!



[부채백의관음] size 35cm×66cm
[복달마] size 37cm×67cm
[관세음보살] size 42cm×67cm

他 사찰과 색다른 달력을 배포함으로써 신도 유입에 도움이 되리라 사려됩니다.

佛보살님들의 발원으로 福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대박 달력입니다. 날짜마다 길흉표기를 해두었고, 사찰의 행사 날짜 별로 기록되어 있어 사찰신도들에게 유익한 달력입니다.

※달력 하단에 각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주문은 50부 이상 받습니다.

재수대길 재수대길기획사

문의 전화 010-7462-2557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김 경 석